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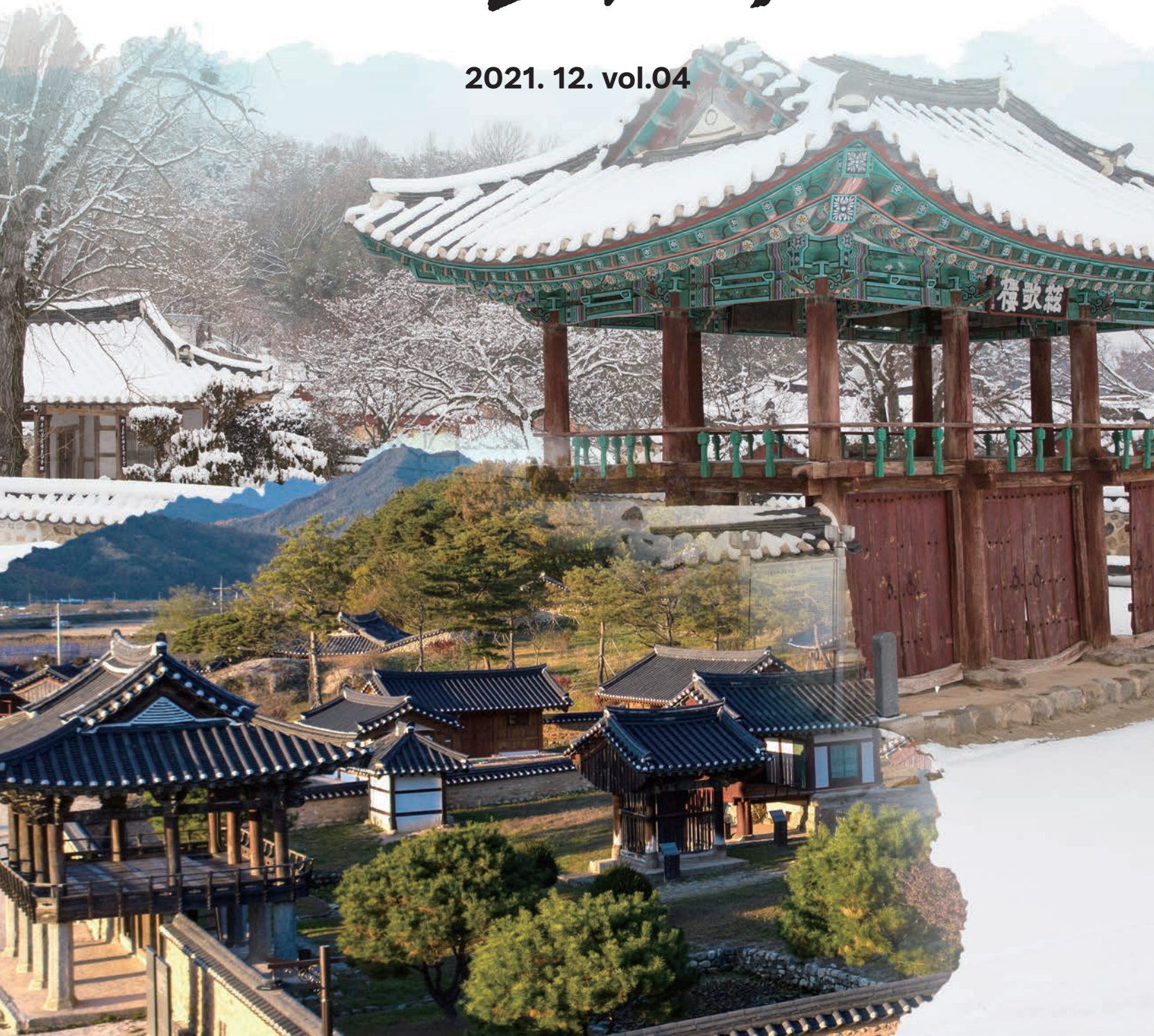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서원사상책

2021. 12. vol.0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 Contents

2021. 12. vol.4

## 01 권두언 4p

김현모 문화재청장

## 02 서원이 있는 시문(詩文) 6p

화하서

## 03 서원 깊이보기 8p

함양 남계서원 · 정읍 무성서원

## 04 서원과 사람들 28p

안동 도산서원 이동신 별유사

안동 병산서원 최영자 문화관광해설사

## 05 독자 탐방기 32p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서원 탐방

## 06 세계유산 특집 36p

전통의 가치 세계에 알리다

이배용 이사장

## 07 한국의 서원 리서치 40p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관리연구

## 08 관리단 소식 43p

이사장 동정 및 관리단 운영 소식



03

남계서원



05

독자탐방기사진 상음례



06

이사장님 특집기사



08

CCTV

통권 제4호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기획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행인 이배용 감수 이해준

주소 서울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연락처 02-929-5442 홈페이지 k-seowon.or.kr 디자인·제작 팬디자인 (02-6713-2785)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관광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꽃 피우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문화재청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서원 유림 등 관계자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우수한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 그리고 제향, 강학, 교류라는 기능을 유지하는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관리계획과 해설 방안을 수립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서원’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등재 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하여 한국의 서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위해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절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초·중·고교에 교육용으로 제공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위상 강화와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2021년 한국의 서원 국내외 학술포럼’을 지원하여 11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상의 문화 콘텐츠의 창출과 향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시장은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방문을 계획 중인 잠재고객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드론, 무인자동차와 같은 첨단산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비롯하여 확장현실(XR) 메타버스의 기술이 문화상품 전반에 급속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잠재고객들은 그들의 욕구를 직접경험이 아닌 기술적인 경험으로 충족시키려 하고 있지만 간접 경험은 결국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하게 하므로 이러한 첨단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관광문화콘텐츠는 제작자의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서원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소리에 경청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서원산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청절당



경장각

# 회하서 懷河西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하는 필암서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배향하는 서원이다. 제자들에게 대학(大學)을 버리고서는 도(道)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쳤던 그는 성균관 문묘에 모셔진 동국18현 가운데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고고한 절의와 깨끗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칭송받았던 김인후는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는데, 성군이 되리라 믿었던 세자가 재위 8개월 만에 숨을 거두자 낙향한 뒤 학문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는 인종 임금의 기일인 매년 7월 초하루에 술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취한 뒤 통곡했을 만큼 임금에 대한 의(義)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암서원의 중심이자 강학공간인 청절당(淸節堂)에는 김인후의 학덕을 기리는 편액이 여럿 걸려 있는데 그중에는 제자인 송강 정철이 스승 김인후를 회상하며 지은 칠언절구 시가 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은 이 시를 통해 김인후의 출처(出處)에 대한 절의를 높이 사고 있다. 여기서 출처란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남’을 의미한다.



묵죽도판



묵죽도



하서 김인후 신위



하서 김인후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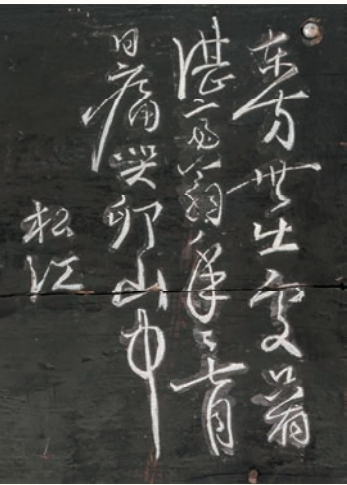


필암 바위

시를 풀이하면 이와 같다. “동방에는 그 출처가 없더니 / 오직 담재옹 한 분 있었네 / 매년 7월 초하루가 돌아오면 / 온 산에 통곡소리 가득했네” 여기서 회하서(懷河西)란 ‘하서를 그리며’라는 의미로 김인후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임을 뜻하며, ‘담재(湛齋)’는 김인후의 별호를 말한다.

## 회 하 서 懷河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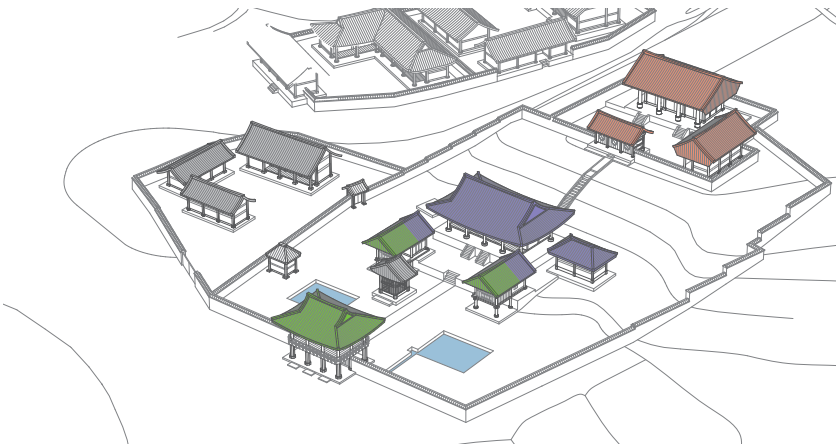
동 방 무 출 처  
東方無出處  
지 유 담 재 옹  
只有湛齋翁  
연 년 칠 월 회  
年年七月回  
통 곡 난 산 중  
痛哭卵山中



회하서 편액

세계유산가치

1566년 사액서원의 반열에 오른 남계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건축배치 형식을 제시한 서원이자 고을의 사림이 주도하여 세운 최초의 서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제향 공간
- 교류와유식 공간
- 강학 공간
- 기타 시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이지만 우리나라 서원 건축배치 형식을 처음 제시한 서원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사회에 연루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성리학자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남계서원은 지리산 북쪽 기슭의 함양땅에 자리 잡고 있다. 동방오현으로 꼽히던 문헌공 정여창은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성균관 문묘에도 배향된 성리학자로 명성이 높던 인물이다.

글 | 이상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함양 지역 사림이 주도해 세운  
최초의 서원  
**남계서원**





남계서원

## 도학의 등불을 밝힌

## 동방오현, 문헌공 정여창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위치한 남계서원은 문헌공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고을의 사림(士林)이 주도하고 고을 원이 지원하여 건립된 서원이다. 남계서원에서 가까운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에서 정여창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서원을 풍광이 좋은 이곳에 건립하게 된 것이다. 사림 세력에 속하는 성리학자이자 문신(文臣)이었던 정여창은 “조선 사회에 전해지지 않던 도학(道學)을 전하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도학을 밝힌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1498년(연산군 4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어 1504년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 후 갑자사화(1504년)로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부관참시’란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관을 꺼내 부수고(剖棺 부관) 시신을 참수하는(斬屍 참수) 형벌을 말한다. 정여창은 이와 같이 사림 세력이 탄압을 받으며 크게 피해를 입었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정여창의 억울함은 종종 때 풀렸고, 그의 학문은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한 분으로 평가되다가 마침내 1610년(광해군 2)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었다.

남계서원은 사화(士禍)의 여파로 “사람들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전전궁궁하던” 시기에 개암(介庵) 강익(姜翼, 1523-1567)을 중심으로 한 함양 일대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세운 서원이다. 강익은 정여창이 화를 입은 갑자사화가 있는 지 19년, 조광조(1482-1519)가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한 지 4년이 되는 해인 1523년에 태어났다. 그는 나이 23세 때인 1545년(명종 즉위년) 발생한 을사사화로 사림 세력이 또 화를 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후학은 소경처럼 길을 헤맨 지가 오래되었다.”고 외치며 우왕좌왕하는 고을 사람들에게 방향을 부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는 서원을 함양 고을에 건립할 뜻을 세웠다고 한다.

## 고을의 사림이 주도하여

## 세운 최초의 서원

남계서원은 우리나라에 소수서원에 이어 두번째로 세워진 서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고을의 사림이 주도하여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남계서원의 건립은 강익과 그의 동학들이 서원 건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1552년(명종 7년) 공사를 시작하여 1564년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완성되었고, 1566년(명종 21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다. 왕이 ‘남계서원(濫溪書院)’으로 사액한 것은 서원 앞에 ‘남계(濫溪)’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자 강익은 「남계서원기(濫溪書院記)」를 지어 후대 사람들이 서원 건립의 동기, 의의, 건립 과정, 건립에 관계되었거나 참여한 사람들, 건물들의 명칭과 의미 등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내용은 강익의 글 등을 모아 엮은 『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하권(下卷) 부록 「연보(年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일두선생문집 책판



사당 내부



향알레

이 글은 강익의 「남계서원기」와 강익 「연보」의 기록을 바탕으로 남계서원의 건립부터 사액을 받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산책하듯이 이런저런 내용을 살피며 소개하여 남계서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여창의 위판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해는 1552년이고,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 건립이 완성된 해는 1564년이며, 왕으로부터 ‘남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은 해는 1566년이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기까지 13년, 사액을 받기까지 15년이 걸린 서원이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 남계서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서원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 도(道)를 세워 서원 건립의 뜻을 모으다



남계서원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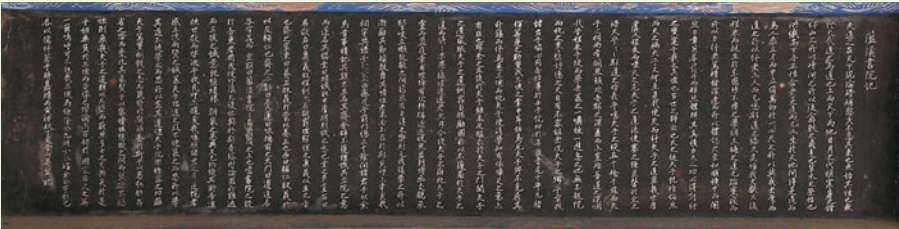
강익은 나이 30세가 되던 1552년 유학을 일으켜서 주창하며 밝히는 것(興起斯文 倡明儒教 홍기사문 창명유교)을 평생의 임무로 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성리학의 정통성을 세워 그것이 널리 장려되기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창하며 밝힐 대상과 장소가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는 제사가 끊어진 것에 통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익은 박승임(朴承任, 1517-1586), 노관(盧祿, 1522-1574), 정복현(鄭復顯, 1521-1591), 임희무(林希茂, 1527-1577)와 함께 “우리 고향은 곧 문헌공이 사시던 고향인데 문헌공이 돌아가신 지 이미 5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서원을 세워 향사를 행하지 못하니 이는 바로 우리 군(郡)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도(道)가 깊이 애통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회동은 곧 남계서원 건립의 뜻을 모은 날이 된다.

그들은 중국 송나라 때 “정이(程頤), 주희(朱熹)가 돌아가시자 학자들이 그분들을 사모하여 한번이라도 읊조렸거나 유식(遊息)하였던 곳(一嘯詠一遊息之地 일소영일유식지지)에는 서원을 건립하여 제사 지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덕(德)을 좋아하는 타고난 떳떳한 본성에 절로 속일 수 없는 점이 있어서일 것이다.”고 하면서 서원 건립의 뜻을 모았다고 한다. 여기서 ‘유식’이란 학문하는 과정에서 집중된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것, 즉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강익은 정여창이 “성리학의 도(道)를 공부와 마음으로 체인(體認)하여 몸소 실천한 천년만에 나타나는 진유(眞儒)이자 백세의 사표(師表)가 되는 인물인데, 변방의 종성으로 유배가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었는데도 그에게 제사 지낼 사당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여창을 현창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기리는 서원을 건립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일두 정여창 탄신 다례제 1©함양군청

# 지리산 북쪽 기슭에 문헌공을 봉안하다



남계서원기 현판

고을 사람들과 함께 남계서원을 건립하는 일을 지휘, 계획, 지원하는 일은 삼후(三侯)가 담당하였다. ‘삼후’란 남계서원 건립 때 고을 원을 지냈던 서구연(徐九淵), 윤확(尹確), 김우홍(金宇弘), 세 사람을 말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주세붕이 죽계(竹溪)에 세운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 받았음) 뿐이어서, 남계서원 건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원 건립 의지를 모은 강익을 비롯한 고을 사람들이 “의연하게 마음을 굳혀” 서원 건립의 뜻을 밝히자 “고을의 선비들이 다투어 쌀을 가져오고 이웃 마을에서도 쌀을 가져와 서원 건립 공사를 도우는 이가 많았으며 평소 강익을 공경하던 군수 서구연이 강익이 하려는 일을 높이 여겨 마음을 다해 도왔다.”고 한다.



정면에서 바라본 풍영루



풍영루 중건기에는 정여창 등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의 공덕이 언급되어 있다

서원을 세우는 일은 강학공간(講學空間)의 중심이 되는 강당 건물을 짓는 공사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강당이 거의 세워지고 지붕에 기와를 이을 즈음 서구연이 상(喪)을 당해 군수직에서 물러나고 새로 부임한 군수가 서원 건립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기와를 덮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서원을 건립할 경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가 흘러 1559년 새로 부임한 군수 윤확과 전 군수 서구연이 강익이 학문하던 양진재로 찾아와 서원 역사(役事)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여 강당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진재는 강익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머물며 공부와 수양한 제자인데,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창원마을, 지리산 북쪽 기슭 귀곡(龜谷)에 있었다. 힘들게 완성된 “강당은 크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때 담장을 둘러쌓고 창고, 부엌, 목욕간을 완성하였지만 아직 서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것은 아니었다. 정여창에게 제사 지낼 사당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1561년 서원 제향공간(祭享空間)의 중심이 되는 묘우(廟宇)가 강당 동쪽 언덕 위에 완성되어 이 해 2월 16일 고을 선비들이 모여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모두 뜻을 모아 축하하며 말하기를 이로부터 유학이 실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선비들이 돌아갈 곳을 알 것이니 한 때의 문물의 번성함을 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이 몰려와 배움을 받다

강당과 묘우가 완공된 이듬해가 되는 1562년 강익은 여러 유생을 이끌고 며칠 동안 경서를 논변하였는데,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이 몰려와 배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그는 유생의 통독(通讀) 규칙을 정하고 매월 초하룻날 유생을 모아 강독하였다고 한다.

강당을 완성하고, 또 묘우에 정여창의 위판을 모셨지만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유생들이 기숙하며 공부할 재사(齋舍)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동재와 서재가 건축되지 않은 까닭에 “학생과 선생이 강당 건물에서 같이 거처하여 예의가 엄숙하지 못한” 것을 알고 군수 김우홍이 동재와 서재를 강당 앞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도록 건립하는 일을 도왔고, 좌우의 재사 아래에는 서원의 유식공간(遊息空間)이 될 조그만 연못을 판 뒤 그 주변에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에는 홍련과 백련을 심었다고 한다. 이로써 남계서원은 서원 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도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이 때 완공된 “사우와 강당 및 동재와 서재, 그리고 전문(前門)은 모두 30여 칸”이었으며, “강당과 동재, 서재는 위엄이 있고 계단과 섬돌은 높고 질서가 있으며 문로의 돌아드는 길은 깨끗하여 가히 불만하였다.”고 한다.



남계원회



남계원회

유식 공간



건물이 완성되자 남계서원은 서원 운영에 필요한 책자와 재정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1564년에는 김우홍이 경상도관찰사 이감(李戡)에게 요청하여 “네 고을에서 생산되는 소금, 두 고을의 생선과 소금, 세 고을의 어장 생산물을 거두어 서원에 영속시켜 선비를 양성하는[養士 양사] 경비를 갖추었다.”고 한다. 1565년에는 강익이 서원에 학생이 늘어나 서적이 많이 없고 재정이 빈약하여 인재를 양육할 수 없음을 크게 걱정하여 노관에게 강당의 서적 구비의 책임을 맡기고, 양홍택(梁弘澤)에게는 재정의 책임을 맡겼는데, 시종 협력하여 서적 100여권을 구비하고 재정에 여유가 생겨 신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부보록:1552년(명조7)부터 1913년까지남계서원에 납부된 일종의 기부금 장부

\*남계서원전답양안 : 1740년(영조16)서원의 전답에 대해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청에서 양안에 의거하여 베끼 뒤 엮어놓은 자료



부보록



남계서원전답양안

유식 공간 전경



# 우리나라 서원 건축배치 형식의 시초

묘우가 완성되고 남계서원에서 예법에 맞게 치제 올리는 것을 조정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해 사람들은 1566년 김우홍, 박계현의 도움을 받아 경상도관찰사 강사상(姜士尙)을 통해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명종은 6월 15일 사액을 내릴 것을 허락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사액 액호를 하사받음으로서 남계서원은 춘추로 치제할수 있게 되었다. 사액을 받는 데에는 노진(盧禎, 1518-1578), 양희(梁喜, 1515~1580),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공로가 컸다고 한다.

1566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뒤 강익은 강당은 명성(明誠), 좌우 협실(夾室)은 각각 거경(居敬), 집의(集義), 동재와 서재는 각각 양정(養正), 보인(輔仁), 동재와 서재의 현(軒)은 각각 애련(愛蓮), 영매(詠梅), 대문은 준도(遵道)라고 이름을 지었고, 매암(梅庵) 조식(曹溥)가 쓴 편액을 걸었다.



남계서원 겨울

강익은 각 건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을 밝혔다. 강당을 ‘명성(明誠)’이라 이름한 것은 『중용(中庸)』의 “밝게 되면 정성스럽게 된다(明則誠 명즉성)”는 뜻을 취한 것이다. 강당의 협실(夾室)은 왼쪽을 ‘거경(居敬)’이라 하고, 오른쪽을 ‘집의(集義)’라고 한 것은 각각 정이(程頤)의 말씀인 ‘거경궁리(居敬窮理)’와 『맹자(孟子)』의 “호연지기란 내 안에 축적된 의(義)에서 생겨난다(集義以生 집의이생)”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의(義)와 경(敬)은 또한 강익이 사숙한 남명 조식이 학문하며 수양한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동재를 ‘양정(養正)’이라 한 것은 『주역』의 “어려서 바른 도리로 기른다(蒙以養正 몽이양정)”에서 뜻을 취한 것이고, 서재를 ‘보인(輔仁)’이라 한 것은 『논어』의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以友輔仁 이우보인)”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사우 전경

서원 대문인 ‘준도문’은 그 후 문루(門樓)로 바뀌어 1층은 ‘준도문’, 2층 다락은 ‘풍영루(風詠樓)’가 되었다. 준도문은 정환필(鄭煥弼)의 유림들과 의논하여 1840년(헌종 6) 가을 문루로 고쳐 짓기 시작하여 이듬 해 6월 낙성하였는데, 현재 풍영루는 1847년 소실된 것을 1849년 중건한 것이다. ‘풍영’은 증점(曾點)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바람쐬며 노래하겠다고 한 ‘풍영(飜詠)’에서 취한 것이다. 강익이 1563년 양진재 남쪽에 지은 정자 이름도 ‘풍영’이다.

남계서원의 묘우는 제향공간에, 명성당, 거경재, 집의재, 양정재, 보인재는 강학 공간에, 애련현, 영매현과 그 앞의 연못, 그리고 풍영루는 유식공간에 속한다. 서원의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성정(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장수(藏修)’하는 공간에 속한다. 이러한 공부는 마치 “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것과 같아서 “시위를 풀어내기” 위해 현(軒), 루(樓), 연못과 같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유식’공간을 요구한다. 남계서원은 서원에서 요구되는 장수공간과 유식공간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장수, 유식은 『예기(禮記)』 「학기」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상 남계서원 건립 과정과 연계시켜 관련된 사실들을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남계서원은 서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수공간(藏修空間)과 유식공간을 우리나라 서원 공간 구성에 처음 제시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에 더하여 남계서원은 서원 영역의 가장 뒤에 제향공간, 그 앞에 강학공간, 가장 앞에 유식공간을 배치하여 우리나라 서원 건축공간 구성의 기본 형식을 처음 제시한 서원이라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는다.



준도문(풍영루) 현판



서재 보인재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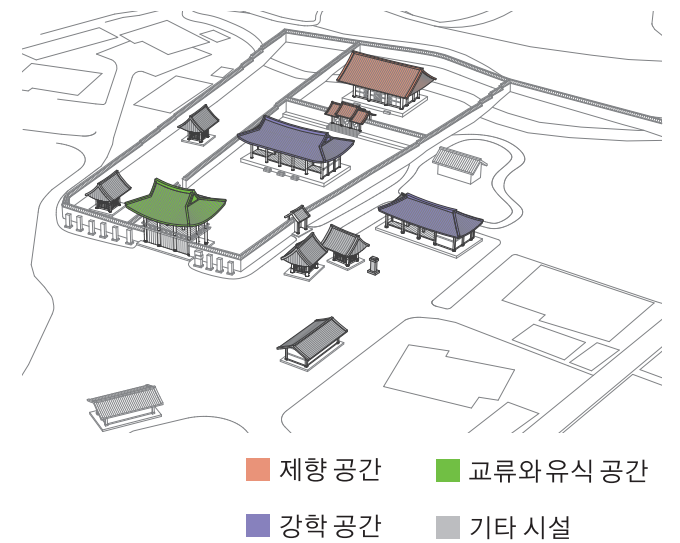
동재 양정재 현판

# ‘무성(武城)’과 ‘현가(絃歌)’의 뜻을 되새기다 무성서원



## 세계유산가치

1615년에 창건되었으며 고운 최치원이 제향됐다는 점과 마을 속의 서원으로 흥학, 교화라는 특별한 전통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무성서원은 신라 말기의 대유학자 고운 최치원을 비롯해 모두 일곱 명의 학자들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당시 고을 태수로 부임했던 최치원의 선정을 잊지 못한 지역민들이 생사당을 건립했고, 조선시대에는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으로 이 사당을 옮기면서 옛 지명에서 따온 이름을 붙여 '태산사'라 부르게 되었다. 1615년에는 지역 유림들이 현감 신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생사당과 태산사 그리고 향학당을 합치면서 태산서원이 되었다. 1696년 마침내 숙종임금이 '무성'이라는 이름을 새긴 현판을 내리면서 무성서원은 사액서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글 | 이해준(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이 되다



무성서원 사액 현판

2019년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면서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널리,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서원을 연구하거나 전라도 지역의 유교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성서원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경우는 무성서원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많은 관심이 없었고, 그리하여 사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서원이었다. 그런데도 무성서원은 어떻게, 어떤 이유와 배경으로, 다른 8개 한국의 대표 서원들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을까?

그러나 무성서원의 독특한 가치와 의미는 사실 전문가들에게는 이전에도 적지 않게 인정을 받았었다. 우선 다른 서원들과 달리 무성서원에는 조선시대 인물이 아닌 통일신라시대의 고운 최치원이 제향된 점, 그리고 무성서원에 소장된 최치원의 영정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무성서원도 1968년에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전북 정읍의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에 소재한 무성서원은 1615년(광해군 7)에 창건되었고, 사액은 1696년에 받은 서원이다.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목된 문화유산적 특징은 첫째 최치원이라는 한국 유학사의 상징 인물이 제향된 곳이라는 점, 둘째는 마을 속의 서원이면서 홍학과 교화의 특별한 전통과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고운 최치원을 비롯한 지방관들이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홍학 활동을 펼쳤던 지역 사람들을 기리는 특별한 서원이었으며, 한말에는 강학 전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말의 병오의병 창의가 이곳 무성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것 등이 바로 그러한 관심과 가치를 되새기게 하였다.



현가루 앞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정읍시청

# 무성서원의 전신, 홍학의 전당 ‘태산서원’

무성서원은 한국의 여러 서원 중에서도 창건 연혁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즉 무성서원은 서원 건립유서가 통일신라 시대 고운 최치원의 홍학활동에서 비롯되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수령)의 홍학과 지역민 교화의 공적과 그 유서(學堂: 서당터)를 기리면서 건립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성서원에 주향으로 제향되는 고운 최치원(857~?)은 한국 유학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통일신라시기에 당나라로 유학하여 관리가 되었고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저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은 천하의 문장가로도 이름을 떨쳤다. 태인 고을 사람들은 최치원이 887년에 태산태수로 부임하여 군민을 교화한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유풍을 백세토록 전하고자 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의 월연대에 생사당을 지어 모셨다고 전한다.

그리고 최치원의 생사당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인 지역의 또 다른 인물 불우현 정극인(1401~1481)이 1483년 마련한 ‘향학당(鄉學堂)’과 합쳐져 1485년(성종 16) 현 위치로 이건하고 태인의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泰山祠)’라는 사우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극인은 조선 초기 유학자로 만년에 태인에 은거하면서 향학당을 건립하여 젊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마을의 선비들과 향음주례를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극인이 이곳에서 시행하였던 ‘고현동향약’은 한국 향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500여 년 계속된 운영 모습이 다양한 고문서로 남아 전하여 보물 제1181호 지정되기도 하였다.



비각 · 강수재



태산사

그리고 이어 1510년(중종 5)에는 송세립이 강당과 동·서재를 건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서원의 전통을 일찍 만들게 되었다. 그 후 1543년(중종 38) 태인 현감으로 부임한 신잠(申潛)은 7년간 재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다. 특히 고을 내 동서남북 4곳에 학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홍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잠이 이입하자, 고을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 최치원의 경우처럼 생사당을 세워 그의 공적을 기렸다.



강수재

그리고 태산사는 100여 년이 지난 1615년(광해 7)에 규모를 일신하여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최치원과 신잠을 함께 제향,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이 결합하는 특이한 발전사를 보여 주게 된다. 이어 1630년(인조 8)에는 불우현 정극인(1401~1481), 놀암 송세립(1479~?), 목재 정언충(1479~1557), 성재 김약목(1500~1558), 1675년(숙종 1)에는 명천 김관(1575~1635)까지 추배하여 최치원을 주향으로 모두 7위를 제향하는데 이들은 모두 향촌 교화와 홍학에 특별한 행적을 보인 지역출신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비롯되어 정극인, 신잠 등 유학의 진흥과 홍학의 치적을 남긴 지방관과 송세립 등의 지방 학자들을 제향한 특별한 서원으로 그 명성을 이어갔던 것이다.

##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다

태산서원은 1696년(숙종 22) 전라도 유생 202명이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마침내 ‘무성(武城)’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 태산서원의 사액을 청한 전라도 유생들은 1695년(숙종 21) 11월 태산서원에서 향회를 통해 뜻을 모으고 곧 통문을 돌려 의견을 수합하였고 이듬해 1월 5일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당시 청액 상소에서는 사우의 창건이 이미 100여 년이 지났다는 점, 그리고 최치원의 문장과 학업, 종묘 배향을 비롯하여 신잠의 홍학 행적, 정극인 등 향현들의 활동을 적고, 이와 같은 선현들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액 받지 못한 것을 사림들이 모두 애석해하고 있으니,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신속히 사액하여 사우를 빛내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禮曹)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소문을 올린다.



태산사 현판



태산사 내부



동덕바석군

“최치원의 도학은 우리나라에서 뛰어나 이미 성묘(聖廟)에 배향하였고, 신잠이 학문을 흥기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우뚝하게 유교의 교화가 있었던 것은 오늘날까지도 고을 사람들에게 그 은덕이 미치고 있습니다. 향현의 경우에 있어서 정극인 이하 5인은 모두 학식이 뛰어나 칭송할 만하여 많은 선비들이 사우를 건립하여 제사 지내니, 선현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소문은 1696년(숙종 22) 정월 초9일에 숙종에게 전달되었으며 그해 2월 9일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다.



무성서원이 사액을 받게 된 과정이 수록된 <연액기사>

## ‘무성(武城)’, ‘현가(絃歌)’의 의미

서원의 액호 ‘무성(武城)’은 신라시대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렸던 고장인 무성과 같은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논어(論語)』의 ‘양화(陽貨)’ 편에서 공자의 제자 자유가 노나라 무성(武城) 현감이 되었는데 예악(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마침 현가(絃歌)가 들려와 탄복했다는 일화와 연관된다. 태산(泰山)이라는 옛 지명과 사우 이름이 있었음에도 ‘무성’이란 이름을 사액한 것과,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를 딴 문루 ‘현가루(絃歌樓)’는 이 서원이 읍이 크던 작던 간에 다스림은 반드시 예악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교화사상을 나타낸다. 심학(心學)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흥학(興學)과 예교(禮敎)를 중심에 두었음을 상징한다.



현가루 현판



현가루

## 마을 속 경관과 간결한 건축 구성

무성서원의 입지는 다른 서원들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려한 위치 하는데 반해 무성서원은 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무성서원이 자리 잡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는 서북쪽에 솟은 칠보산에 기대어 형성된 마을이다. 동편으로, 즉 마을의 전면과 좌우에 넓게 트인 들이 있고, 들 가운데로 칠보천이 흘러 마을 북편의 동진강에 합수된다. 바로 이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형국의 마을 중심에 무성서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원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건축 구성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들이 특별히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검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성서원의 건축이 지닌 이러한 형식과 형태에서 서원이 백성들과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든가 향촌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무성서원 전경

## 고운 최치원 영정과 문집

무성서원의 건립 유서가 한국유학의 도통이라 할 고운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비롯되었음을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무성서원이 발전하면서 또한번 최치원과 관련한 특별한 사연들이 만들어 진다. 즉 무성서원에는 주향인 고운 최치원의 영정이 소장된 곳이다. 고운 최치원의 영정은 1784년(정조 8) 쌍계사에서 가져 왔고, 그런가하면 1834년에는 최치원의『계원필경집』이 간행된 곳으로도 무성서원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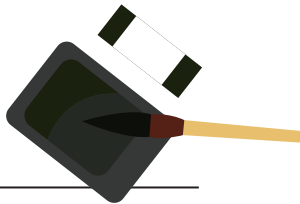
최치원의 영정(影幀)은 쌍계사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1783년(정조 7) 낙안·홍양 향교 유생들이 무성서원에 통문을 보내 이안하기를 권유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듬 해에 무성서원에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고,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이안해 온다. 이 과정과 영당이건이 무성서원에 소장된 『중수일기』에 아주 상세하게 일기체로 수록되어 있다. 각종 부조기(扶助記), 헌관집사기(獻官執事記), 봉안영정일기(奉安影幀日記), 단청중수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운의 영정은 1784년 이안 이후 순조 25년(1825) 무성서원 강당이 소실되자 태인현감 서호순이 영정이 훼손될까 염려하여 1831년에 새롭게 개모하였고(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3년에는 한말의 저명한 화사 채용신(1850-1941)에 의하여 다시 개모 되어 전북도립미술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무성서원 소장 최치원 영정 ©정읍시청



중수일기



## 최치원의 문집 『계원필경』

최치원의 시문집인 『계원필경집』이 무성서원에 소장되는 과정은 서유구(徐有)가 지은 계원필경 의 서문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다. 서유구는 1834년 호남관찰사로 재직 중 무성서원에 배알하였는데, 마침 홍석주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계원필경』구본을 보고는 이를 교정하여 전주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현재 무성서원 강당에 걸려있는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에는 심능숙(沈能淑)이 무성서원을 방문하고는 서원에서 당연히 문집을 보장해야 한다며 감사 서유구에게 보고하여 전주감영에서 간행하도록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 한말 병오창의와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흥학당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 향약의 전통이 합쳐져 오랜 전통을 이어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무성서원에서는 1872년(고종 9) 현감 조중식(趙中植)이 원장을 맡으면서 매년 봄(3월 3일)과 가을(9월 9일)에 강습례(講習禮)를 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총 20회(향음주례 2회 포함)의 강습례(講習禮)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습례의 전통과 유림 강학의 전통이 한말 병오의병(丙午義兵)으로 이어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찬의 병오창의 거점이 바로 무성서원이었던 것이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임병찬(林炳瓚, 1851~1916)은 1906년 6월 4일 무성서원에 모여 강회를 열고 최치원의 영정을 봉심하였다. 그리고는 당시 서원 소임 김기술, 유종규와 함께 강회에 참석하여 창의토적소를 올렸다. 강회가 끝난 후 80여 명의 의사가 함께 창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을 돌려 태인, 정읍, 순창, 곡성을 점령하였으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현, 임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강수재 앞에 있는 ‘병오창의기적비’에는 당시의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원필경집©국립중앙박물관

병오창의, 무성창의로 일컬어지는 1906년의 최익현, 임병찬의 의병사적은 무성서원의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면암 최익현의 의병 창의는 앞에서 소개한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익현의 병오창의



병오창의기적비

## 숨결이 남은 무성서원 고문서들

무성서원에는 다양하고 특별한 서원 고문서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들 성책고문서들은 필사 원본으로 무성서원의 역사와 문화, 활동 특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액서원이고, 전라좌도의 수원(首院)으로 명성이 컸던 무성서원의 운영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유생안류(원유안, 원생안)과 함께, 사액을 받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연액기사, 중수일기, 그리고 완문·절목, 심원록과 봉심록 등이다.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무성서원 유생안은 사액 이전의 태산서원 당시의 원생록 2책과 무성원서원으로 사액 받은 이후의 원생록 2책으로 시대가 매우 이른 1618년, 1620년, 1622년, 1639년, 1659년 5건의 태산서원유생안(泰山書院儒生案)이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무성서원원생안(武城書院院生案)도 1773년과 1800년 원생안, 그리고 1801년의 노비안이 함께 첩해져 있어 모두 7점의 유생안과 1종의 노비안이 보존되어 있다.



무성서원제물책



봉심록

그리고 무성서원에는 다른 서원들에서 보기 힘든 <연액기사(延額記事)> 1책이 전한다. 이는 무성서원 사액과 관련된 기록으로 1695년 무성서원 청액소에서부터 연액례, 폐물 등 부조기, 건물의 수리, 위패의 환안과 이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중수일기(重修日記)> 1책은 1783년(정조 7) 고문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출연한 인명과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영당이건 관련한 일체의 일기체 기록이다.

한편 서원 운영과 경제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고문서로 무성서원의 완문과 절목이 4책으로 전해지고,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200여 년 동안 서원을 찾아와 봉심했던 인명록인 심원록과 봉심록도 5책으로 전하는데 이들 자료를 통하여 무성서원 학맥과 인맥, 정치사적 성향을 가늠할 수가 있다. 무성서원제물책(武城書院祭物冊) 1책은 1734년 무성서원에서 사용한 제물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사액 후 관에서 제수 공급한 물품 명목이 실려 있다.



태산서원유생안



퇴계 선생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성리학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다

안동 도산서원

이동신 별유사

도산서원 설립의 목적은 퇴계 선생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모범을 보이며, 선한 마음가짐을 공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은악양선의  
정신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동신 별유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교사에서 유사로, 퇴계 선생의 뜻을 널리 알리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산서원에는 아침부터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와 경내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전교당에서는  
‘알묘의례 체험’이 진행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산서원의  
배향 인물인 퇴계 선생의 삶과 정신을 보고, 듣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사당에서 퇴계 선생을 뵈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침 이동신 별유사가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를 일생의  
업으로 삼았던 이동신 별유사는 퇴직 후 퇴계 선생의 뜻을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도산서원으로 왔다.

“별유사란 서원의 행정 및 재정 등 여러 사무를 보는 역할이에요.  
서원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서원의 원장님은 상유사, 의례를  
주관하시는 분은 재유사라 부릅니다. 도산서원에서는 특별히 강독  
유사를 두어서 별유사와 재유사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  
유학의 경전이나 퇴계 선생께서 남기신 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 정조임금의 명으로 별시가 치러진 역사의 현장

이동신 유사는 조선시대 도산서원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낙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시사단(試士壇)이라고 말했다. 1792년  
(정조 16년) 도산서원에서 별시가 치러진다. 퇴계 선생의 학문을  
기리고자 정조임금이 친히 내린 명에 따라 도산별과(陶山別科)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응시한 사람이 7,200여 명, 답안지를 제출한 인원이  
3,600여 명에 이르렀을 정도다. 실제로 도산서원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당시 퇴계  
선생을 배향하는 도산서원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산서원에서 과거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전교당 마당에서 과거를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강 건너 넓은 술밭에서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의 시사단은  
과거시험의 시재를 걸어두었던 자리입니다. 이후 과거시험을 치른  
기념으로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조성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외방별시’라고 하여 한양 이외에 과거시험을 치렀던  
장소는 몇 곳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그 현장이 남아있는 곳은  
도산서원의 시사단이 유일하다. 때문에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이 자리를 호수 아래로 수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의에 따라  
축대를 쌓아 단을 조성했다고 한다.



전교당에서 진행되는 알묘 체험



조선시대 별시가 열렸던 시사단

## 대를 이어 전해지는 고매한 학덕

영남 유림의 정신적 지주였던 퇴계 선생의 고매한 학덕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동신 유사가 목에 걸고 있는 고서적(古書籍)  
형태의 목걸이에 새겨진 은악양선(隱惡揚善)이 그것을 말해준다.  
혼탁한 세상에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 지나친 비난을 일삼기보다 본  
받아야 할 점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퇴계 선생의 16대 종손 이근필  
옹이 주창한 말씀이다.

“은악양선은 악행을 감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한 것을  
묻어주고 남이 잘한 것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은 널리 알려져서  
공유하자는 뜻이지요. 안동이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에 걸맞게 험한 말은 줄이고 남들의 허물은  
묻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은악양선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산서당

## 복잡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만대루 너머 병산을 바라보며 힐링하세요 안동 병산서원

### 최영자

#### 문화관광해설사

조선 중기의 명신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하는 병산서원을 찾아간 날은 은은했던 병산의 단풍이 저물어가던 계절의 끝자락이었다. 서원을 찾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위용을 자랑하는 만대루 앞에서 최영자 해설사를 만났다.



### 병산서원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다

병산서원은 임진왜란의 명신 류성룡을 배향하는 서원으로 서애 선생 사후에 그를 추모하는 사당인 존덕사를 세우면서 서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후 1863년 철종 임금에 ‘병산서원(屏山書院)’이라는 현판을 하사하면서 사액서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요즘 서원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불명’ 혹은 ‘물명’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서원과 서원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것이다. 최영자 해설사는 유독 병산서원에서 그러한 방문객이 자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만대루 너머로 펼쳐지는 병산(屏山)과 그 아래로 흐르는 낙동강 일원 모습이 서원과 하나가 되어 빚어내는 풍광은 그야말로 자연 속에 은일하며 마음공부에 전념하던 옛 선비들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경

“요즘 병산서원의 풍경을 보기 위해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한참 무언가를 바라보다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얼마 전 진입로 포장 공사 때문에 서원까지 오기가 어려웠는데도 도보로 1시간 거리를 걸어와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워서 그 분과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시지만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들은 병산서원을 비롯해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고 병산서원이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최은자 해설사는 그러한 공감과 대화 속에서 피곤을 잊고 힐링 받고 있다고 했다.



병산서원 전경

### 느림의 미학은 서원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

최근 병산서원 진입로 일부가 포장되면서 서원으로 가는 길이 더욱 편해졌다. 흙길이었던 진입로는 비가 오면 진창이 되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반면 빨리 와서 슬쩍 둘러보고 훌쩍 떠나기보다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러가며 음미하고 감상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방문객도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흔히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 번쯤은 비포장 길을 따라 덜커덩 거리면서 찾아와 병산서원을 음미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곳을 찾은 어떤 부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달구지를 타던 것처럼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고 말이죠. 흙길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는 균형과 조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지난 9월 병산서원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유산축전’ 행사가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당시 우리 전통 악기와 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 열렸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시연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서원 앞마당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모하였다고 한다.

“세계유산축전 행사를 보면서 이런 풍경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서 어울림이 배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병산서원을 비롯해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고 병산서원이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최영자 해설사는 그러한 공감과 대화 속에서 피곤을 잊고 힐링 받고 있다고 한다.

#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행복했던 서원 탐방



상음례

우리나라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시작하게 된 한국의 서원 탐방은 최한용 독자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다. 우리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서원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의 즐거운 인연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했던 그 어떤 답사나 여행보다 행복했기 때문이다.

글 | 최한용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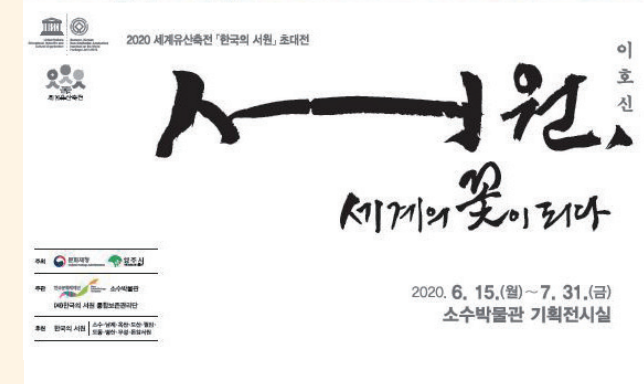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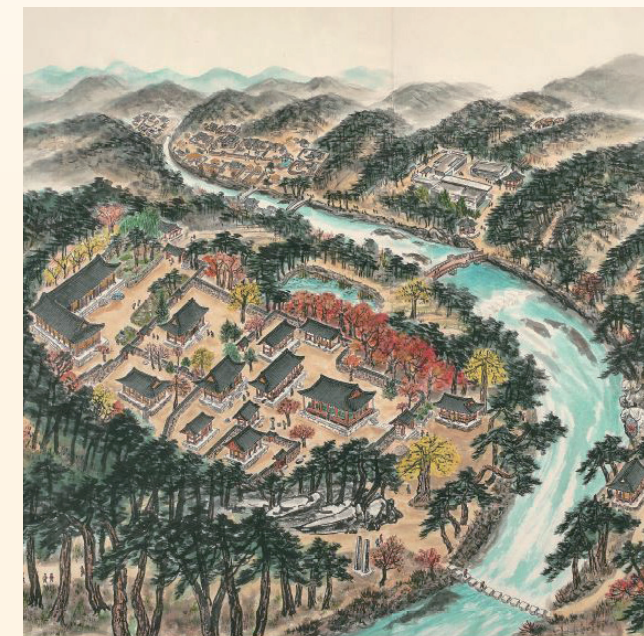
도동서원

## 우리 정신문화의 원류를 향한 순례길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이호신 화가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위한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회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한국의 서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9개 서원을 모두 순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곳 또 한 곳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 교육기관인 아홉 곳의 서원들은 몸과 마음의 수양을 위해 수려한 산자락이나 물가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며 수목도 아름다워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배우고자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원 주변을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사실이 순례길을 더욱 재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원 순례에 동참한 지인들 모두 각자 본업이 있기에 일정을 조율하며 순서를 정하였는데, 약 2년에 걸쳐 아홉 곳의 서원을 모두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도동서원 그리고 마지막 필암서원을 끝으로 서원 탐방이 끝을 맺게 되었네요.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특별전

## 서원만큼 아름다웠던 사람들과의 인연

2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습니다. 달성의 도동서원에 들렀을 때는 서원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의 수형을 보고 깊은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대개 일직선으로 곧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도동서원의 은행나무가 참으로 예쁘게 가지를 뻗은 모습으로부터 나무조차도 서원을 공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에는 ‘서원 전체를 아우르는 기운과 정신이 녹아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정당의 여섯 기둥 위에는 ‘상지(上紙)’라고 부르는 흰 종이를 두른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9개 서원 중 유일한 부분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단석의 형태와 색이 다른 것에서 상생의 조화를 느꼈다고 할까요.

해설사님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 해설사님이셨는데요. 서원에 들어가기 전 팔을 포개어 인사하는 옛 선비들의 인사법을 배우며 남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서원이나 향교를 방문했을 때 선비의 인사법을 알려 주신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강학공간에 모두 좌정을 하고 앉아 서원의 내력이나 역사적 의미,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도산서원 전교당 상읍례



#서원 #전통체험 #상읍례 #선비의인사법



전통체험 프로그램 참여중인 방문객들

##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행복했던 서원 탐방

전체 서원을 모두 둘러보고 난 느낌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 서원마다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의 순으로 배치된 건물과 부속 건물 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며 배우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과 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칫 경시할 수도 있는 인간 중심의 철학사상을 그곳에서 재발견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인접한 서원을 방문, 충효사상과 인성의 본질을 배우는 기회를 만들 기회가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이 위치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다시금 서원의 가치를 일깨우고 서원의 문화, 선비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필암서원 망기



병산서원 집사분정



©이동춘 사진작가

# 한국의 서원 최초의 3관왕 금녀의 벽을 허물고 전통의 가치 세계에 알리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 배 용** 이사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원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배용 이사장이 우리나라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초로 구상했던 그는 최초의 여성 초헌관, 여성 최초의 선비대상 수상으로 금녀의 벽을 허물고 있다. 전통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전. 전통한지와 종가문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이배용 이사장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구상하다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마침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9개 서원이 지닌 연속유산으로서의 논리 미흡, 중국 서원과의 차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반려의견을 받기도 했던 상황인지라 바쿠에 머물던 한국대표단과 이배용 이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배용 이사장은 “등재가 확정되는 순간 또 하나의 우리 유산이 세계에 인정받았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라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이배용 이사장은 국가브랜드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구상을 시작하면서 남성의 전유물로 알았던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여성에게 닫혀있던 ‘금녀의 벽’을 허물며 서로가 존중하는 상생의 시대를 열었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한국의 서원 등재

서원향사 최초의 여성 초헌관

성별의 벽을 허문 사례는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원향사 최초로 초헌관을 맡은 일이 바로 그렇다. 2020년 10월 1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 경자년 추계 향사에서 이배용 이사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초헌관을 맡았다. 금녀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서원 향사에서 제사에 술잔을 가장 먼저 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배용 이사장은 이듬해인 2021년 3월 30일 정읍 무성서원의 춘계향사에서 초헌관으로 사당인 태산사에서 첫 술잔을 올렸다. 이 이사장은 “서원의 보편적인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성 교육의 본산이라는 데 있다. 특히 인격 수양에 있어 인간의 이치인 인의예지신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가치이자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이 같은 서원의 가치가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도산서원 초헌관



무성서원 초헌관©전북일보

여성 최초의 선비대상 수상

그는 여성 최초 초헌관에 이어 금년 11월에 또 한 번 ‘여성 최초’의 역사를 열었다. 이배용 이사장은 11월 10일 경북 영주시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영주시는 한국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공헌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한국학 유학 연구의 세계화 및 대중화에 힘써 한국 고유의 선비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상에 선 이배용 이사장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시행하는 ‘선비대상’을 받아 너무 영광스럽다”라며 “최초의 여성수상자로 선정돼 더욱 뜻깊고 성별, 세대를 초월한 선비정신이 포용과 상생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선비대상 수상



선비대상 기념촬영

전통한지와 종가문화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

‘최초’ 그리고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이배용 이사장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현재 전통한지와 종가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한지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그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지식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서적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 창호의 문풍지, 하늘을 나는 연, 조선시대 여성 의례복인 당의 그리고 군사용 갑옷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한반도의 특산품이었던 썸이다. 2021년 4월, 이배용 이사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 전북, 경북의 도지사가 참여하는 전통한지 등재추진단이 결성되었으며, 한지의 고유성 분석 및 세계유산 등재 절차의 지원을 위해 학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 발대식

한국 종가문화 역시 이배용 이사장을 주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배용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종가포럼’에서 ‘한국의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배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종가문화는 건축과 기록 문화유산, 각종 의례와 음식, 구비문화, 그리고 동족기반과 관련된 각종 지원 시스템들을 두루 갖춘 종합문화유산”이라며 종가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살려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12월 16일 서울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열린 각 지역 종가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종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되었다.



경북종가포럼

역사에서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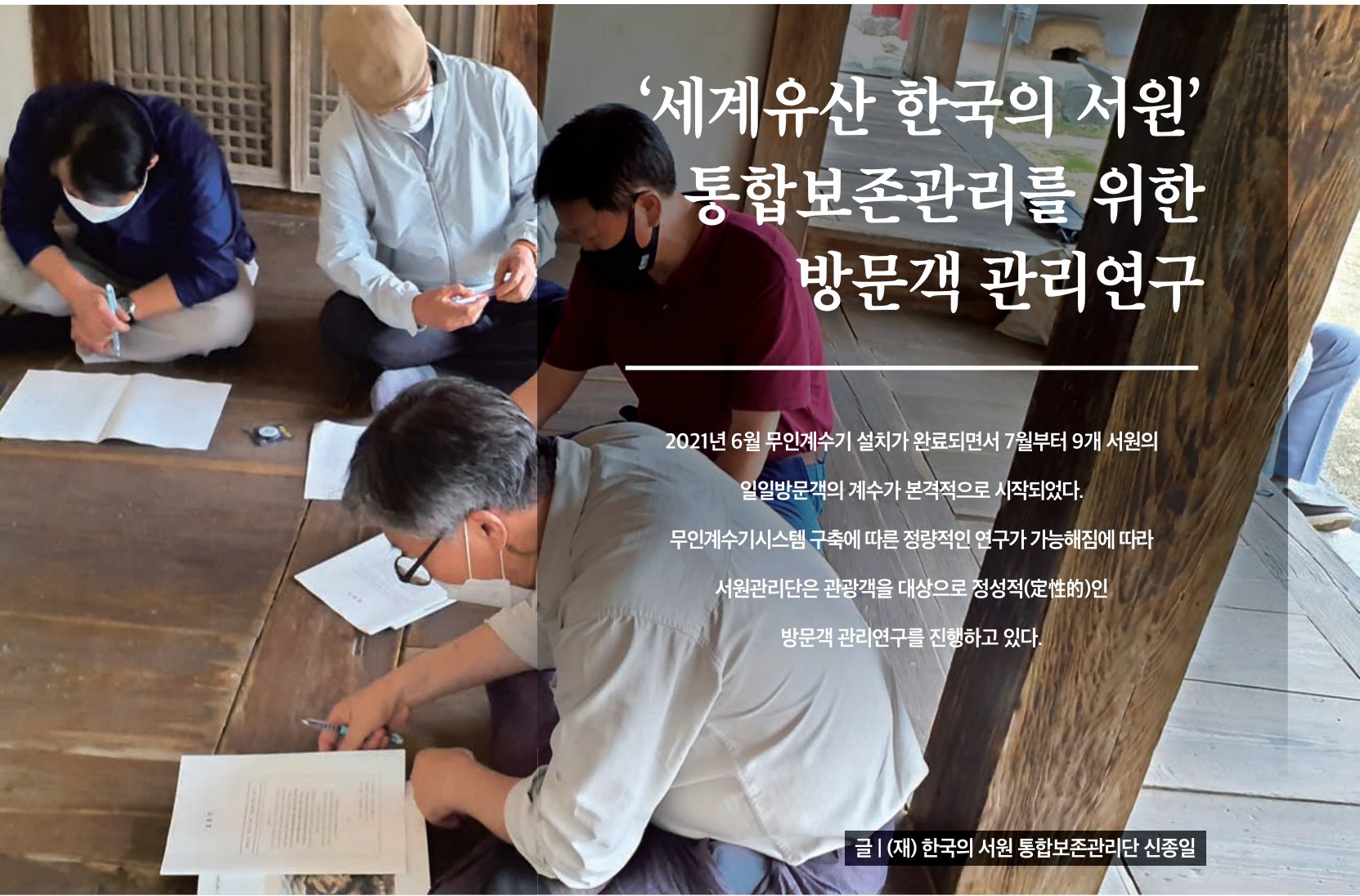
이배용 이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저서인 <역사에서 길을 찾다>를 펴내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 온 역사적 유물이야말로 현재이자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비춰 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선진국이라 하면 땅만 넓다고 또 경제만 부강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격조 있고 아름다운 문화가 살아 있을 때 세계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역사에서 길을 찾다> 서문 중에...



역사에서 길을 찾다 책표지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관리연구

2021년 6월 무인계수기 설치가 완료되면서 7월부터 9개 서원의  
일일방문객의 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인계수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량적인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원관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적(定性的)인  
방문객 관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글 |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신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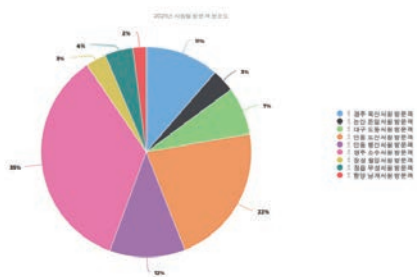
## 책임 있는 세계유산 관광 및 유산관리 방안 마련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 시킨 유산을 의미한다. ‘한국의 서원’이 2019년 7월에 우리나라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그 가치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세계유산은 문화관광자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관광대상으로 매력적인 요소이며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수용력을 넘는 관광객 유치와 무분별하고 부정한 관광개발 등으로 인해 관광은 유산에 영향을 주는 개발압력 유형의 하나의 항목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이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는 책임 있는 세계유산 관광을 위하여 유산관광 현황, 유산의 수용력, 예상 방문객 수 등을 파악하여 방문객 압력을 방지하는 유산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1. ‘한국의 서원’ 방문객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9개 서원의 통합보존관리와 세계유산협약 제29조에 따른 정기보고를 위하여 2021년 6월, 9개 서원에 무인계수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9개 서원의 일일방문객의 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서원관리단에서는 2021년 무인계수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량적인 연구와 더불어 서원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적인 방문객 관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서원별 방문객 분포도]

<표 1> 연도별 3분기 서원방문객 현황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비고
2021	19,665	1,155	9,363	13,538	2,209	3,337	9,106	2,379	2,406	무인 계수기
2020	30,337	-	-	42,423	6,971	-	-	3,371	11,811	관광지식정보
평균	25,001	1,155	9,363	27,981	4,590	3,337	9,106	2,875	7,109	
2010~ 2019 평균	60,825	-	26,934	78,156	2,856	-	-	4,325	13,458	관광지식정보
코로나전후 증감률	△58.8	-	△65.2	△64.2	60.7	-	-	△33.5	△47.2	

## 2. ‘한국의 서원’ 방문객에 대한 정성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리다.

이번 연구의 중점과제는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이다.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ys)이란 마케팅 관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주요 속성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사전 기대치인 중요도에 대한 사후 성취도인 만족도 수준을 동시에 분석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분석기법으로 특히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다 (Hammit et al., 1996).



방문객 무인계수기 (소수서원)



방문객 무인계수기 (돈암서원)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관광지로서의 특성과 향후 관광개발에 필요한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인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방문객들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원이 가지고 있는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의 기능적 가치를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자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이 시급하고, 세계유산의 문화관광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접근성과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잠재관광객의 시장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서원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먹거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은 중요한 여행지로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포용적 지역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관광을 위하여 서식지 변경과 파괴, 부적절한 자연자원의 개발, 채광으로 인한 손상,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의 유입, 유산 혹은 부근의 새로운 정주 중심지 조성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관광은 유산에 영향을 주는 개발압력 유형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세계유산 관광을 위하여 첫째, 유산의 기용 기준, 유산의 이용 패턴, 향후 계획활동 등 유산의 관광현황을 제공하고, 둘째로 등재 또는 다른 요소들로 인해 예상되는 방문 규모를 기술하며, 셋째, 유산의 수용력, 그리고 현재 또는 예상 방문객수와 관련된 개발압력에 대해 부작용 없이 대응하기 위한 유산관리 향상방법을 제시하고, 넷째, 유산의 무형적 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해 방문객 압력과 행태로 인한 유산의 악화 형태들을 고려해야 한다(문화재청, 2020).

2021년 서원관리단의 서원방문객 관리연구는 지속가능한 유산관광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계속하여 서원 방문객 수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추후 서원의 적절한 수용력을 파악하여 관광압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정성적인 연구를 통하여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서원의 보존과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표 2> 서원방문객의 관광형태 분석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관광 목적지	서원	505	67.2	관광 기간	당일	465	61.3
	다른 곳	246	32.8		1박2일	163	21.5
이곳방문경험	없다	313	41.4		2박3일	97	12.8
	있다	443	58.6		3박4일	14	1.8
9개서원 방문경험	있다	539	71.2		4박5일	14	1.8
	없다	217	28.8		기타	5	0.6
방문 목적	관광 업무 학업 답사 기타	438	58.2	숙박 장소	서원	51	6.8
		22	2.9		민박	82	11.0
		73	9.7		게스트하우스	38	5.1
		202	26.8		모텔	75	10.0
		18	2.4		호텔	66	8.8
정보 원천	친구 여행사 인쇄물 홍보 인터넷 기타	168	23.3		캠핑	37	4.9
		24	3.3	예약 방법	자가 등 기타	748	53.3
		116	16.1		인터넷	235	31.6
		101	14.0		전화	134	18.0
		247	34.3		직접방문	62	8.3
		64	8.4		기타	313	42.1
동반자	가족 친구/애인 회사동료 동호회 혼자 기타	372	49.4	여행 경비	10만원미만	249	34.1
		157	20.8		10만원대	149	20.4
		45	6.0		20만원대	159	21.8
		103	13.7		30만원대	84	11.5
		58	7.7		40만원대	31	4.2
		18	2.4		50-70만원	40	5.5
					80-100만원	9	1.2
					100만원이상	9	1.2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 교육

이배용 이사장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7월부터 활동해 온 청소년 지킴이 학생들은 첫 번째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지킴이 학생들은 금번 강의를 통해 향후 탐방하고자 하는 한국의 서원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서원을 널리 알리자는 다짐을 하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 교육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강연

이배용 이사장이 지난 11월 10일 경북 영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에서 ‘지금 왜 선비정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배용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사리분별과 갈등조장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의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위기에 직면해있다”라고 말하며 “선비정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오늘날 인간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정신 유산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말로 서원과 유학, 선비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유산임을 강조했다.



선비대상 시상식에서 강연하는 이배용 이사장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

지난 10월 23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이 개최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열린 발대식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지킴이 디자인모듬 친구들은 각 서원의 특징을 반영한 홍보용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청소년 지킴이 1기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총 100명을 모집했으며,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의 소재 지역 거주 청소년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



청소년지킴이 1기 발대식



한국의 서원 스티커

## 🍷 서원 관리자 대상 심화교육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이 개최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될 각 서원의 유사 및 해설사가 참여했다. 9개 서원 교육장에서 열린 심화교육은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대표인 송인호 교수를 비롯해,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김영수 교수, 서울시 배지연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화교육은 하나의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 교육을 비롯해 9개 서원의 개별 특성에 대한 내용 외에도 '한국의 서원 통합 정보'의 공유와 '연속 유산으로서의 통합 이미지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해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남계서원에 설치된 CCTV

지난 11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해예방을 위해 통합관리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본 사업은 2021년 지방비 분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현재 관리단에서 설치한 CCTV는 각 서원 당 1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더욱 광범위한 서원 주변 지역을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CCTV의 설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사업을 통해 서원 주변 경관에서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원관리단 사무국에 설치한 통합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 CCTV 재해관제실



사무국 CCTV 재해관제실 전경

